

# 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노사협의 재개

## 4차 협의 이후 26일만에...사내하청 분신 조합원 모금 등 합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8일 최인호 사내하청 분신 관련 사내협력사 및 광주공장 노사협의에서 지난 6일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사내협력사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김 조직부장의 폐업을 기원하기 위해 업체별 모금활동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또 사내협력사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도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는 지난달 12일 62만대 증산을 위한 노사간 4차 협의를 한 이후 26일 만인 8일 5차 노사협의를 진행했다. 노조 광주지회도 이날 소식지를 통해 증산협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추진하는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는 300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말 설비공사를 모두 마무리했고, 올해 증산협의를 거쳐 2월 초부터 본격 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증산협의를 연기할 수 없게 됐다. 증산협의를 지난 4월1일 시작했으나 지난달 16일 발생한 분신 사건으로 협의가 전면 중단됐다. 노사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광주공장에서 제2공장 생산량을 현행 46.1UPH(시간당 생산대수)에서 66UPH로, 3공장의 생산량을 23.1UPH에서 26UPH로 각각 늘리는 등 현재 연간 50만대에서 62만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그동안 분신 사건으로 1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증산 협의가 재개돼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조만간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 하청 분회 김모 조직부장은 지난달 16일 광주2공장 천막농성장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한 뒤 분신을 기도했다. 노조는 즉시 62만대 증산 협의를 중단하고, 회사 측에 특별교섭을 요구, 진행해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은 8일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사용해 달라며 (사)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아자동차 제공)

## 기아차 광주공장 범죄 피해자 돕기 광주지원센터에 후원금 1000만원 전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범죄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종웅)은 8일 범죄피해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인간적인 권리를 보호해 달라며 (사)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아차 광주공장 분과 집견실에서 실시된 후원금 전달식에는 김종웅 기아차 광주공장장과 허정 (사)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양효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2번째로 범죄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전달식을 실시했다.

김종웅 광주공장장은 “이번 기아차 광주공장의 후원이 범죄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며 “기아차 광주공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범죄피해자들이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 밝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사)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상담, 자문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인인 의사·변호사·법무사·전문상담사 등이 피해자가 고통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13일~16일 중소기업 행사 다채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제2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로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을 보탠다. 13일부터 16일까지 지속되는 25돌 중소기업주간은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실시된다. 14일에는 광주 서구 센트럴호텔에서 ‘임정규 광주지방국세청장 간담회’를 열고, 협동조합 및 조합원, 소상공인의 국제행정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1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2013년 제1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 최근 우리 지역 대기업 협력업

체들의 경영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납품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지원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 정보교류와 상호 유대강화를 강화하기 위한 ‘광주전남 협동조합 한마음대회’가 순천 정원바람화장에서 열리며 23일에는 광주전남 소상공인포럼, 2013년 광주 중소기업인 대회가 연이어 진행된다. 강영태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은 “중소기업주간에 시행되는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어버이날 재래시장 찾은 롯데백화점

류민일 롯데백화점 광주지역장 등 임직원들이 8일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을 찾아 상인회와 함께 상가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금호터미널 ‘1318 응원 이벤트’ 11일 젊은층 연극 ‘검정 고무신’ 무료관람

금호터미널이 성직 비판이나 자살 충동, 실업문제로 고민중인 젊은층의 응원에 나섰다. 금호터미널은 오는 11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1318 응원 이벤트’를 개최하고 연극 ‘검정고무신’을 무료 관람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지난 2009년 문광부 우수공연으로 선정된 이 공연은 부산 극단 ‘에저포’가 초연한 뒤 올해 1000회 공연을 돌파했다. 60~70년대를 배경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

아가는 남매들이 일상의 시련을 가족애와 희망으로 이겨낸다는 이야기. 관람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년취업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볼 수 있다. 앞서 금호터미널은 지난 2일에도 청년구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리포resti 이벤트를 열고 연극 무료관람 기회를 가졌다. 문의 (062-360-8431).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4월 광주 아파트 경매건수 전국 최저

### 40건 경매 19건 낙찰

지난달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건수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물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매전문 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이 4월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경매건수 4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 가운데

19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7.5%에 그쳤다.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가 없어 평균 응찰자는 5.4명으로 전년 동월(6.8명)보다 1.4명 적었다. 경매 경쟁률 1위는 남구 봉선동 봉선 3차 1단지 무등파크아파트가 차지했다. 16명이 몰려 감가가 대비 95%에 낙찰됐다. 낙찰가를 부문은 서구 중앙동 중앙지구 호반, 중흥아파트가 차지했다. 10명이 응찰해 감가가 대

비 145%에 낙찰됐다. 전남지역 아파트 경매건수는 67건이 진행돼 전년 동월(33건)보다 34건이나 많았다. 경쟁률은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세립2차아파트가 한번 유찰된 뒤 13명이 몰려 94%에 낙찰됐다. 낙찰가를 부문은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주공아파트에 3명이 응찰해 감가가 대비 106% 낙찰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                           |                                |                               |
|----------------------------|---------------------------|--------------------------------|-------------------------------|
| ▲ 코스피지수<br>1956.45 (+2.10) | ▲ 코스닥지수<br>576.70 (+3.02) | ▲ 금리 (국고채 3년)<br>2.55% (+0.01) | ▼ 원·달러 환율<br>1086.50원 (-4.90) |
|----------------------------|---------------------------|--------------------------------|-------------------------------|

## 미국에 김치 보내기 까다로워진다 한미 14일부터...봉어즙·개소주 등은 통관 불허

앞으로 미국에 있는 유학생 자녀나 친척들에게 김치나 배즙 등 건강식품을 보낼 때는 현지 세관 통관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식품이라도 포장상태나 품목명 기재 방식에 따라 현지 세관에서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우체국 국제특송(EMS)이나 소포에 대한 ‘통관 정보 교환에 관한 카탈로그 협약’에 따라 오는 14일부터는 한국과 미국이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 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서로 제공하게 된다 고 8일 밝혔다. 대상정보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 내용물의 품명과 수량, 가격 등이다. 이에 따라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발송되는 봉어즙, 개소주 등의 경

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유사 의약품으로 취급돼 통관이 아예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배즙이나 양파즙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배나 양파를 이용해 가공한 것은 음료로 간주돼 통관될 수 있으나 다른 약재 등을 첨가한 경우에는 유사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우편물 품목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한다. 김치의 경우도 시중에 판매되는 밀봉 포장 제품의 경우 통관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비닐 포장한 경우에는 다른 우편물에 대한 오염 우려를 이유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 적용에 따라 불법 물품 반입을 더욱 치밀하게 차단하고 정상 우편물은 더욱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 방수 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요리 하는 남자

#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 I O PEN

활직원 | 주방직원 | 파트타이머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집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